

심리학적 성서해석의 방법: 융의 꿈해석을 중심으로

김용민 박사(MCI 대표, 침신대 겸임교수, 목회상담학)

I. 들어가는 글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성서를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적 성서해석이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먼저 '심리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심리학은 '프쉬케'와 '로고스'가 합쳐진 말로, '마음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2001; 2013)가 『영혼에 대하여』에서 '프쉬케'에 대해 이미 오래 전에 언급했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오늘날 심리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심리학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지금도 이것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다음으로, 심리학적 성서해석의 대상인 '성서'에 대한 이해이다. 성서도 심리학만큼이나 오래되었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다르며, 성서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끊임없이 읽히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서를 이해한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자신이 이해한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늘 유보되기도 하고 늘 확신되기도 한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확증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해석'에 대한 이해이다. 해석은 심리학적 성서해석에서 주체도 객체도 아닌 기술에 해당한다.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 2000: 17)는 해석학을 '이해의 기술'로 정의했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의 주체인 인간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석' 역시 늘 검증의 대상이 된다. 해석자들은 자신의 해석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해석이 해석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온전한 이해'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그러한 다양한 시도들 가운데 하나이다.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심리학'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해석들과 구분되지만, 심리학을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심리학에 대한 반감과 심리학적 성서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부주의 때문이다. 심리학에 대한 반감은 심리학이 지니고 있는 세계관 때문이며, 특히 프로이트(S. Freud)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성서해석의 부주의는 심리학적 성서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성서해석을 소홀히 하고 심리학을 성급히 적용하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먼저 심리학적 성서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언급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심리학적 성서해석의 역사와 필요성 그리고 특수성서해석으로서의 심리학적 성서해석을 다룰 것이다. 다음으로 심리학적 성서해석의 영역을 언급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저자, 독자, 성서인물의 심리분석, 심리학이론을 사용하는 심리학적 성서해석, 심리학적 해석학을 사용하는 심리학적 성서해석을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적 해석학을 적용하는 특수성서해석으로서 융(C. G. Jung)의 꿈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성서를 해석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심리학적 성서해석에 대한 이해

1. 심리학적 성서해석의 역사

역사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역사적 사실에 역사가의 관점을 더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icoeur, 1988: 180-181). 여기서 역사적 사실은 명백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하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심리학적 성서해석의 역사 역시 이와 관련된 하나하나의 흔적을 찾아 그것에 특정한 관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리학적 성서해석의 역사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과거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심리학적 성서해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는 분명히 정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성서해석의 한 분야로서 끊임없이 이어온 심리학적 성서해석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교부시대이다. 교부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심리학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은 존재했다. 이 시대에는 각 세기마다 심리학적 성서해석을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었다. 2세기에는 멜리토(Melito of Sardis), 3세기에는 터툴리안(Tertullian), 4세기에는 그레고리(Gregory of Nyssa)와 어거스틴(Augustine), 5세기에는 네메시우스(Nemesius)와 같은 사람들이 성서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을 시도했다(오우성, 2001: 131). 이러한 사실은 성서가 본래부터 그 안에 심리학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신학적인 조류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18세기 계몽주의시대이다. 이 시대에는 계몽주의, 경건주의, 낭만주의가 성행했으며, 이것에 따른 자유주의신학이 등장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있는 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이다. 쉐라이어마허는 종교를 "절대의존의 감정"으로 정의했으며, 성서해석에 문법적 해석 외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심리적 해석을 더했다(권중선, 2002: 56-57). 이러한 쉐라이어마허는 현대신학의 아버지, 자유주의신학의 아버지, 실천신학의 아버지, 현대해석학의 아버지 등 수많은 술어들이 붙어있다. 쉐라이어마허가 중요한 이유는 문법적 해석에 심리적 해석을 더한 보편적 해석학을 통해 일반문서뿐만 아니라 성서를 해석함으로써 성서를 터부시하던 당시에 성서도 읽을 만한 책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성서를 일반대중의 손으로 돌려보냈다는 점이다.

세 번째 단계는 20세기 이후이다. 프로이트는 1900년에 『꿈의 해석』을 출판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분트를 현대 심리학의 시작으로 보기는 하지만, 심리학적 성서해석에서 중요한 시기는 프로이트 이후이다. 이때부터 심리학적 성서해석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성서신학 내의 '역사적, 문학적 비평에 대한 회의'와 학제 간 연구의 경향이 심리학적 성서해석의 발전에 한 몫을 차지했다(오우성, 2001: 132; 권중선, 2002: 68). 그러나 성서신학 내에 심리학적 성서해석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팽배해지면서 역사 속에서 잠시 희미해졌다가 1980년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 하나의 세력을 형성했다. 그러나 목회상담의 영역에서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간헐적으로 끊임없이 시도되어 온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리학적 성서해석의 가능성/필요성

이상의 논의를 볼 때,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이미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이것이 존재했다고 해서 그것의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심리학적 성서해석과 관련된 논란은 그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특히 심리학과 신학의 통합이라는 주제는 심리학이 신학에 접목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논쟁 가운데 하나이다. 필자는 통합이 가능하되 '신학을 우위에 두는 입장'에서 심리학적 성서해석의 가능성과 필연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김용민, 2010, 21).

첫 번째로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면서 동시에 인간 저자의 의해서 쓰여진 인간의 책이라는 점에서 심리학적 성서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Hobbs, 1996: 24). 즉 심리학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성서의 중요한 한 축이 인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심리학적 성서해석의 가능성이 열린다. 특히 성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 심리를 통해 인간을 돌보시고 관계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성서가 역사적인 산물임과 동시에 심리적인 산물이라는 점에서 성서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오우성, 2001: 135). 성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시작된 이래 역사적인 과

정을 거쳐서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성서는 단지 이렇게 역사적인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즉 하나님과 관계했던 사람들의 심리, 성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성서를 낳게 한 공동체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만약 성서가 이러한 심리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독자들의 손에까지 전해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성서는 오늘날 독자들의 심리도 담아낸다(김용민, 2015: 46).

세 번째로 현대 성서해석학이 학제간의 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발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서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권종선, 2002: 68). 즉 역사학, 사회학, 문학 등 다양한 학문에 성서해석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심리학이 그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기록자 또는 성서 자체에 담겨있는 심리적 요소들을 밝혀내려는 시도는 다른 학문의 적용과 구분되는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심리학적 성서해석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지만, 동시에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기도 한다. 즉 성서가 하나님의 책임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심리학적 성서해석이 필요하며, 역사적 산물임과 동시에 심리적인 산물이라는 점에서 심리학적 성서해석이 필요하고, 학제간의 통합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심리학적 성서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기독교 내의 심리학에 대한 반감이나 해석자들의 부주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3. 특수성서해석으로서의 심리학적 성서해석

성서해석은 크게 일반성서해석과 특수성서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성서해석은 성서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서 성서의 본뜻을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것은 석의 또는 본의적 해석(exegesis)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성서의 기자가 의미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이며, "성서기자가 무엇을 말했고(내용 자체) 또한 왜 그 시점에서 그것을 말했나(문학적인 맥락)를 알아보는 것"이다(Fee, 1998: 25). 이런 해석은 원칙적으로 해석자의 생각을 배제한다.

특수성서해석은 일반성서해석에서 다루기 힘든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서 성서비평학의 관점에서 성서를 해석하는 것을 가리킨다(권종선, 2002: 37). 다르게 표현하면,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는 것으로, 자료비평, 양식비평, 편집비평, 사회학적 비평, 장르비평, 수사학비평, 서사비평 등의 방법론을 지니고 있다. 이런 비평방법들은 성서를 독특한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것은 성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심리학의 발전과 부흥으로 생겨난 심리학적 비평 역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특수성서해석으로 심리학적 비평의 맥락에 있다. 특수성서해석은 관점을 가지고 성서에 접근하기 때문에 성서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그러므로 심리학적 성서해석 역시 성서의 본의를 간과한 채 자의적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의적 해석(eisegesis)은 '제멋대로의 해석'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그러나 '관점을 가진 해석'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김용민, 2014c: 45). 이런 측면에서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일차적으로 '관점을 가진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제멋대로의 해석'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수성서해석으로서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다른 성서비평과 마찬가지로 성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성서해석을 앞서거나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권종선, 2002: 37).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일반성서해석을 보완하는 측면이지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성서해석은 기본적으로 성서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있어야 하며, 일반성서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달성해야 한다.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삶에 적용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심리학적 성서해석이다.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특수성서해석으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정체를 규정할 때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심리학적 성서해석을 정의하면, "성서 텍스트에 대한 본의적 해석(exegesis)을 바탕으로 성서가 말하는 부분과 말하지 않는 부분을 심리학적 관점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성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하고, 성서 텍스트 앞에서 독자와 독자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성서 텍스트의 세계를 독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화 과정을 포함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III. 심리학적 성서해석의 영역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형원(2009: 396-398)은 롤린즈(Wayne G. Rollins)의 견해를 반영하여 특정한 본문 양식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 성서인물들의 심리학적 분석, 성서 이야기와 인물묘사에 내포되어 있는 정신역동적 요소 분석, 성서문화와 제사제도에 나타난 종교현상연구, 꿈과 꿈꾸기의 분석, 심리학적 해석학,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주석, 성서적 심리학 등의 영역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심리학적 성서해석의 영역 가운데 필자가 주로 사용하는 저자, 독자, 성서인물의 심리분석, 심리학이론을 사용하는 심리학적 성서해석, 심리학적 해석학을 사용하는 심리학적 성서해석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1. 저자, 독자, 성서인물의 심리분석

심리학의 대상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심리학적 성서해석이 성서의 저자, 독자 그리고 성서인물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해석자들이 저자, 독자, 성서인물의 심리분석을 시도한다. 이 가운데서도 성서인물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성서인물의 심리분석은 “성서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를 심리학이론과 용어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가리킨다(김용민, 2014b: 50). 물론 심리학이론이나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성서인물의 심리분석은 가능하다. 어느 것이든 등장인물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성서인물의 심리분석 가운데 본의적 해석에 충실한 예는 이재호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이재호는 심리학이론을 사용하여 성서의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를 분석한 후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한다. 사울을 편집적 적개심을 가진 심리적 미성숙자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지도자의 심리적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룬다(이재호, 2017: 212-242). 또한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분석을 통해 그들이 변하지 않은 이유를 찾고 그에 대한 답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한다(이재호, 2018: 178-210). 그리고 전능성과 통제의 관점에서 아담의 선악과 시험과 예수의 광야 시험을 비교한 후 심리학적인 대안을 제시한다(이재호, 2016: 296-329). 이렇게 이재호는 비교적 본의적 해석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한다.

성서인물의 심리분석 가운데 본의적 해석에 충실하지는 않더라도 성서인물에 대한 의미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돌토(Dolto, 2000)는 『인간의 욕망과 기독교 복음』에서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한다. 그러나 ‘정말 그러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성서적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편 성서인물의 심리 분석 가운데는 “성서가 의미하는 바가 아닌 심리학이론을 증명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김용민, 2014b: 50). 실제로 에딩저(Edinger, 2001: 57)는 『성서와 정신』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한 것을 가리켜, “자아와 자기 사이에 전개되는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라고 칭하고 있다.

덧붙여, 성서인물의 심리분석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미영은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성서를 재해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가인이야기를 계층 간의 갈등상황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가인의 시기심과 수치심을 논하며 가인을 배제의 상징으로 상정한다(이미영, 2013: 135-162). 요나의 불순종과 분노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기독교에서 죄로 간주하는 반항과 분노의 필요성을 논한다(이미영, 2016:139-171). 고멜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여성신학적 입장을 대변한다(이미영, 2018: 166-196). 이런 경우도 ‘상대적 우울성의 범주’ 안에서 성서인물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의적 해석이 이를 얼마나 뒷받침할지는 미지수이다.

저자의 심리분석이나 독자의 심리분석은 심리학적 성서해석에서 빈도가 많지 않은 편이다. 저자의 심리분석은 슐라이어마허가 심리적 해석을 통해 저자를 재구성하려고 했던 점을 볼 때, 심리학적 성서해석에서 중요한 분야임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의 심리분석은 ‘저자는 죽었다’고 주장하는 해석학의 흐름에서 점점 잊혀졌다. 그러나 벤후저(Kevin Vanhoozer, 1998)가 ‘저자의 부활’을 이야기함으로써

성서저자의 심리분석은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다. 독자의 심리분석은 저자의 심리분석에 밀리다가 독자반응비평의 등장으로 더욱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특히 텍스트가 독자에게서 완성된다는 리콥르의 주장은 해석학에서 독자를 주목하기에 충분했다.

2. 심리학이론을 사용하는 심리학적 성서해석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기본적으로 심리학이론을 사용하는 해석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심리학적 성서해석의 주된 분야는 '심리분석'이며, 이것은 심리학의 용어와 이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리학적 성서해석 초기에는 주로 프로이트의 이론이 사용되었다. 물론 현재도 프로이트의 이론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프로이트의 이론이 지니고 있는 탁월성과 지배성 때문이다. 프로이트에 대한 기독교 내의 반감은 새로운 이론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융의 심리학이다. 현재는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 외에도 다양한 심리학이론이 사용되고 있다.

심리학이론을 사용하는 심리학적 성서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해석의 순서이다. 먼저 심리학이론을 사용하는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성서에 대한 본의적 해석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심리학적 성서해석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심리학이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 의식적으로 이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심리학이론에 대한 해석자의 선호가 성서 본문을 간과한 채 심리학이론을 성급히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벡(Aaron Beck)이 말하는 자동적 사고와 같이 일종의 무의식적인 자동 반응이다. 다음으로 해석자는 본의적 해석의 결과를 토대로 그에 맞는 심리학이론을 찾아야 한다. 이 때문에 심리학이론을 사용하는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해석자에게 심리학적 지식을 요구한다(김용민, 2014a : 56). 물론 모든 이론을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적합한 이론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심리학의 틀에서 성서를 보고 그 틀 안에 성서를 맞추는 것보다 성서에 충실하며, 성서해석을 보조하고 풍성하게 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김용민(2014a)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17절에 대한 본의적 해석을 통해 이 본문이 융의 분석심리학(개인무의식/집단무의식, 페르조나, 원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적용하여 본문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을 시도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1-11절에 대한 본의적 해석과 의미치료를 소개하고 의미치료의 큰 틀(거리두기, 태도변화, 증상감사, 보다 큰 의미부여)을 적용하여 본문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을 제시했다(김용민, 2014c). 특히 이 본문에 의미치료를 적용했을 때의 유익한 점을 부가했다.

심리학이론을 사용하는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본의적 해석을 충실히 한다면, 다양한 이론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과거에는 정신분석학이나 분석심리학이 주로 사용되었고, 이후 교류분석이나 현실치료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는 심리치료나 상담이론을 넘어 다양한 심리학을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Rollins, 2002: 87-88). 특히 심리학이론의 발전은 심리학적 성서해석의 영역을 확장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심리학이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성서가 담고 있기도 하므로 성서와 심리학의 상호적인 대화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 심리학적 해석학을 사용하는 심리학적 성서해석

해석학은 크게 인식론적 해석학과 존재론적 해석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런 해석학의 목적은 진리 또는 존재의 폭로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적 해석학 역시 '이해의 기술'로서 해석학의 영역에 해당하며, 인식론적 해석학으로서 해석의 방법론을 지니고 있기도 하며, 해석의 결과로 진리 또는 존재를 폭로하기도 한다. 이런 심리학적 해석학은 기본적으로 심리학이론을 따른다는 점에서 다른 해석학과 구분된다.

심리학적 해석학에서 중요한 학자는 리콥르(Paul Ricoeur)와 호만스(Peter Homans)이다. 리콥르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호만스는 융의 이론을 가져와서 심리학적 해석학을 전개했다. 물론 리콥르와 호만스가 프로이트나 융의 이론을 그대로 차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을 해석학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이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리콥르(1965)는 『해석에 대하여』에서 '해석을 통해 의미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프로이트를 '철학자'이자 '해석학자'로 간주하여 '해석학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리콰르는 심리학적 해석학의 가능성을 열었다.

호만스(Homans, 1969)는 심리학과 해석학에서 융의 공헌을 언급하면서, 융의 이론의 핵심을 환상(fantasy)과 원형(archetype)으로 보고, 이것에 대한 해석행위가 그의 심리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융이 환상과 원형이 출현할 때 그 이미지를 해석함으로써 초월(transcendence)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환상과 원형의 출현은 하나님의 초월에 대한 거짓된 거리감각의 붕괴(도그마에서 심리학으로)이고, 그 이미지에 대한 개성화적 해석은 참된 거리감각의 회복(심리학에서 해석학으로)이다.

리콰르와 호만스의 공통점은 프로이트와 융의 이론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둘의 단점은 프로이트나 융이 가지고 있는 실제 방법론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을 지니고 있다. 프로이트나 융도 그러하고, 현실치료나 인지치료 등 다양한 이론들도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론을 지닌다. 이것은 존재론적 해석학이 지니지 못한, 인식론적 해석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적 해석학을 성서해석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단순한 이론 적용을 넘어 그러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롤린즈는 심리학적 성서해석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다. 롤린즈(2002: 148-153)는 융의 이론에 많이 종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융의 꿈해석방법을 성서해석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는 성서해석에서 융의 꿈해석방법 가운데 확충(amplification)과 적극적 상상(active imagination)을 강조했다. 그러나 융에 치우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방법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김성민(2001: 244-258)이 이를 확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다.

IV. 융의 꿈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심리학적 성서해석

성서를 해석하는 것은 융의 심리학이론 중 꿈을 해석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김성민, 2001: 241). 융이 꿈을 해석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꿈꾸이의 의식상황에 대한 고찰', '꿈의 내용 살피기', '꿈꾸이의 연상', '꿈의 이미지에 대한 확충', '적극적 상상' 등 다섯 가지이다(김성민, 2001: 241-243). 여기서 꿈꾸이는 이는 성서의 저자이지만 해석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융의 심리학에서 성서를 해석한다는 것은 해석자에 대한 이해, 성서내용에 대한 이해, 해석자의 연상, 성서의 이미지에 대한 확충 그리고 적극적 상상을 거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융의 꿈해석방법을 통해 일반성서해석과 특수성서해석을 통합한 후 자기화의 과정을 추가하고자 한다. 융은 꿈해석방법을 객관적 단계와 주관적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객관적 단계는 일반성서해석에, 주관적 단계는 특수성서해석에 해당한다.

1. 객관적 단계 : 일반성서해석

꿈해석에서 객관적 단계는 꿈꾸이의 의식상황에 대한 고찰과 꿈의 내용 살피기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꿈은 낮 동안의 내용이 반영된다고 보기 때문에 꿈꾸이가 낮에 의식상태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지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성서해석에서도 해석자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지가 중요하다. 이것은 해석자의 전제 또는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서, 해석자는 자신의 배움과 훈련 그리고 경험 등을 살피고 이것이 현재 성서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권종선, 2002: 18-25). 뿐만 아니라 성서를 해석하기 전 또는 후의 맥락이 현재 성서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거리두기로, 성서와의 원초적 관계를 파괴하고, 성서에 대한 친숙함과 거리를 둬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꿈의 내용 살피는 것은 성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일종의 관찰로서 주관성을 배제하고 본문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해석자는 성서가 현재 본문만 남아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마치 본문을 지금 처음 보는 것처럼 읽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보고 듣고

읽은 전제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때 해야 하는 작업은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유의미한 사실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김용민, 2014b). 본문을 읽을 때는 단어나 어구, 문법, 문맥, 본문의 구조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장르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이 과정은 본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까지 진행된다. 본문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본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문의 구조는 해석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찰에 유의해야 한다.

용의 꿈해석 방법에서 객관적 단계는 여기까지이지만, 일반성서해석을 고려하면 좀더 나아갈 수 있다(김용민, 2014b). 먼저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의 단계에 포함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유의미한 관찰에 대한 유효한 해석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 우월성의 범주'를 고려한 답변을 하면 된다. 이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경우 신학사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상대적 우월성의 범주'는 리코르의 개념으로, 현재 본문 안에서 가능한 해석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해석자는 이 가운데 가장 그럴듯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 다음 단계는 '함께 고려하기'이다. 해석자는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있는 해석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본문에 대한 첫 번째 해석(본의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관적 단계 : 특수성서해석

용의 꿈해석 방법에서 주관적 단계는 개인적 연상, 확충 그리고 적극적 상상을 포함한다. 이것은 성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용 심리학의 독특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 연상은 성서를 관찰하며 떠오르는 것을 가리키며, 확충은 성서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이나 자료를 적용하는 것을 가리키고, 적극적 상상은 성서내용을 글이나 그림 또는 조각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은 성서를 개인화하여 자기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성서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주관적 단계에서 해석자는 먼저 성서가 자신에게 일으키는 연상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성서해석에서 연상은 성서의 내용이 해석자의 "어떤 정신적인 내용과 관계되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김성민, 2001: 242). 이때 텍스트는 객관적 단계 이전의 본문이 될 수도 있고, 객관적 단계에서 관찰한 내용이 될 수도 있으며, 첫 번째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객관적 단계 이전의 본문은 해석자의 전이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합한 텍스트가 아니다. 객관적 단계에서 관찰한 내용이나 첫 번째 해석은 개인적 연상에 적합한 텍스트이다. 이때 관찰한 내용에 대한 개인적 연상이 제일 적합하나 첫 번째 해석에 대한 개인적 연상은 이후 성서해석에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다. 개인적 연상에서는 본문을 통해서 떠오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런 질문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본문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본문의 등장인물은 나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본문은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가?", "본문은 나의 과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개인적 연상은 성서와 해석자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 지점은 이성을 넘어 감정으로 또는 누미노제로도 나아갈 수 있는 지점이다.

주관적 단계에서 해석자는 다음으로 성서의 이미지를 확충한다. 성경해석에서 확충은 해석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신화적인 영역까지 고려하여 성서를 해석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확충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개인적인 경험이 다른 환경적 요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롤린스는 성서해석에 있어서 확충은 "원문에 시간을 들이고 귀를 기울이는 것, 세부에 주목하고 다가가적(多價的) 주제에 민감하면서 의미를 넓히고 깊이를 탐색하는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ollins, 1983: 150). 해석자는 이 단계에서 성서 본문과 관련있는 고대 이야기나 역사적 사건 또는 타문화권의 이야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좀더 확장한다면, 최근에 등장하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확충은 문화 안에 깃든 원형을 만나는 지점이다. 이 원형은 해석자의 사고를 확장해줄 뿐만 아니라 용이 말하는 집단무의지식의 지혜를 제공하기도 한다.

주관적 단계에서 해석자는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상상을 할 수 있다. 적극적 상상은 성서를 "새로운 매체에 의해서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Rollins, 1983: 151). 즉 상상력을 통해서

성서의 본문을 표현함으로써 무의식적인 측면을 끌어내고 이것을 통해 의식적인 측면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성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적극적 상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인 차원을 넘어 무의식인 차원까지 나아가서 성서를 인식하고 체험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인간의 창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성서에 대한 적극적 상상을 위해서는 성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점토로 모형을 만들어 표현하는 것 또는 조각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행동적 요소들이 들어가는 것이 적극적 상상이다. 융은 이러한 적극적 상상을 통해 예술치료가 심리치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는 성서에 담긴 창조적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창조적은 다른 의미로 파괴적일 수도 있다.

3. 자기화 단계 : 적용

성서는 이해를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실천을 위한 책이다. 또한 성서는 실천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즉 성서를 이해하는 것은 최종적 목적이 아니며, 실천이 아니고서는 최종적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해석은 '이해'가 아닌 '실천'에서 완성된다. 리코르가 텍스트의 완성을 독자의 몫으로 남겨놓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리코르는 텍스트 해석의 최종단계에서 자기화를 언급한다. 자기화는 텍스트 해석을 통해서 출현한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현실 세계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즉 텍스트의 세계를 자기 세계로 만드는 과정이다. 가다머(Gadamer, 2004: 306-310)는 이를 적용이라고 했지만, 리코르는 이것을 자기화하고 한다.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특히 융의 꿈해석 방법은 성서를 대상(객체)로 남겨두지 않는다. 주관적 단계를 통해 성서를 상대(주체)로 변환한다. 이는 주체와 주체 간의 만남을 통해 상호주관적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이때 성서는 텍스트의 세계를 통해 해석자에게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해석자는 이 거울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자신의 모습을 본다. 이는 내적 성찰의 과정이며, 해석자는 이를 통해 요통하게 된다. 키에르케고어(2018: 37-49)는 이 요동침을 믿음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 요동침이 내적 성숙이자 내적 성숙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리코르는 이 요동침을 실존적 결단이라는 말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이 요동침은 해석자에게 순종을 요구한다. 해석자가, 해석자의 삶의 자리가 바뀔 때까지 성서 텍스트의 세계는 해석자를 도전한다. 그리고 그 도전이 성취되기까지는 해석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융의 꿈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사실 '실천'이라는 영역이 없다. 융의 꿈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심리학적 성서해석에서 '실천'이 등장하는 이유는 성서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융의 꿈해석 방법은 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는 '자기'에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자기'에 대한 집중이 자기성찰과 인식을 통한 자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융의 개성화과정은 자아를 통해 페르조나를 인식하고 그 안에 있는 그림자를 발견하여 대면할 뿐만 아니라 그 아래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거쳐 자기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가 개성화과정의 종착점이다. 그렇기에 융의 삶에서도 실천보다는 영지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고, 지적 유희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꿈해석 방법은 의미가 있다. 해석을 객관적 행위를 넘어 주관적 행위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관화는 믿음을 가진 해석자를 요동치게 한다. 성서 텍스트의 세계 역시 해석자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어떤 방법이든 해석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서의 힘이며, 해석자 안에 있는 믿음의 실체이다.

V. 나가는 글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특수성서해석의 한 분야로서 성서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성히 하고 개인적 적용점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심리학적 성서해석은 성서의 본뜻을 찾아가는 일반성서해석을 전제로 한다. 즉, 성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에 먼저 초점을 맞춘 후 심리학적 관점을 통해서 성서를 이해한다. 이러한 순서는 심리학적 성서해석이 그동안 부주의하기 쉬웠던 부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그리고 선행된 일반성서해석은 심리학적 성서해석이 성서를 벗어나지 않는 지시의 역할을

한다. 심리학적 성서해석 가운데 융의 꿈해석 방법을 적용한 것은 객관적 단계와 주관적 단계를 통해 일반성서해석과 특수성서해석을 통합하는 형태를 지닌다. 그럼에도 주관적 단계로 인해 특수성서해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성서해석이 추구하는 실천이 담보될 수 없으므로, 성서가 자연스럽게 요청하는 자기화의 단계를 부가했다.

본 연구는 융의 꿈분석 방법을 심리학적 성서해석을 위한 심리학적 해석학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다음 연구를 통해 이 부분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참고문헌

- 권종선. (2002). 『신약성서 해석과 비평』.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 김성민. (2001). 『분석심리학과 기독교』. 서울: 학지사.
- 김용민. (2010). "교류분석에 대한 신학적 성찰."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9. 11-40.
- _____. (2014a). "로마서 7:21-8:17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해석." 『뱃티스트』, 11/12월호. 56-62.
- _____. (2014b). "성서인물의 심리분석." 『뱃티스트』, 7-8월호. 50-55.
- _____. (2014c). "의미치료 이론을 적용한 누가복음 5장 1-11절의 심리학적 해석." 『뱃티스트』, 9/10월호. 45-48.
- _____. (2015). "성서를 사용하는 진단과 상담." 『목회와 상담』. 24. 43-71.
- 오우성. (2001). "심리학적 신약 해석에 대한 비판적 개관." 『신약논단』, 8. 129-157.
- 이미영. (2013). "시기심과 수치심의 감정 벡터: 가인이야기로 본 갈등과 배제." 『목회와 상담』. 21. 135-162.
- _____. (2016). "반항하는 요나를 허용하라: 불순종과 분노의 정당성." 『목회와 상담』. 27. 139-171.
- _____. (2018). "'음란한 고멜'에게 구애하기: 비하와 증오와 혐오를 넘어서." 『목회와 상담』. 31. 166-196.
- 이재호. (2016). "야담의 선악과 시험과 예수의 광야시험 다시 읽기: 전능성의 추구하고 통제의 관점에서" 『목회와 상담』. 26. 296-329.
- _____. (2017). "사울왕의 놉 제사장의 학살사건: 심리적 접근." 『목회와 상담』. 28. 212-242.
- _____. (2018). "광야 출애굽 백성의 심리적 분석: 모세에 대한 원망을 중심으로." 『목회와 상담』. 30. 178-210.
- 이형원. (2009). 『구약성서비평학 입문』.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 Aristotle. (350 BC). *Peri Psychēs*. 『영혼에 관하여』. 유원기 역 (2001). 서울: 공리출판사.
- _____. (350 BC). *Ethika Nikomacheia*. 『니코마코스 윤리학』. 천병희 역 (2013). 서울: 숲.
- Dolto, Françoise. (2000). 『인간의 욕망과 기독교 복음: 정신분석학으로 성서 읽기』. 김성민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Edinger, Edward F. (2001). 『성서와 정신: 구약성서와 개성화과정』.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 Fee, Gordon D. (1998). 『신약 성서 석의 방법』. 장동수 역. 서울: 은성출판사.
- Gadamer, Hans-Georg. (2004). *Truth and Method*. trans. Joel Weisheimer and Donald G. Marshall. New York: Continuum.
- Hobbs, Herschel H. (1996). *The Baptist Faith and Message*. Nashville: Convention Press.
- Homans, Peter. (1969). "Psychology and Hermeneutics: Jung's Contribution," *Zygon* (December): 333-355.
- Kierkegaard, Søren. (2018). 『자기 시험을 위하여』. 이창우 역. 서울: 샘솟는 기쁨.
- Ricoeur, Paul. (1988). *Time and Narrative*, vol. 3. trans. Kathleen McLaughlin and David Pellauer.

Chicago: The University Press, 1988.

_____. (1965). *De l'interprétation : Essai sur Freud*. 『해석에 대하여』. 김동규, 박준영 역 (2013). 서울: 인간사랑.

Rollins, Wayne Gilbert. (1983). 『응과 성서』. 이봉우 역 (2002). 왜관: 분도출판사.

Schleiermacher, F. (1999). *Hermeneutics and Criticism: And Other Writings*. 『해석학과 비평』. 최신한 역 (2000). 서울: 철학과 현실사.

Vanhoozer, Kevin. (1998).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Grand Rapids: Zondervan.